

火木보일러 불씨 하나가 목포 바닷가 상가 13채 태웠다

해안동 일대 화재 ... 다다다닥 밀집구조가 피해 키워
상인들 “노후 건물 개선” 수 차례 요구... 목포시 묵살

목포 상가 밀집 지역에서 불이나 상인 2명이 다치고 다다다닥 불이었던 상가 13개가 모두 불에 타 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안전에 취약한 화목 보일러가 화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역 상인들이 건물 노후화 등을 내세워 수 차례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음에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 화목 보일러 화재 이래로 뇌물 탕가= 20일 오전 6시 10분께 목포시 해안동 목포연안여객터미널 인근 상가 밀집 지역 내 M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에 불이 있던 횡집, 낚시용품점 등 상가 13곳을 태우고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피해 상가 대부분이 목조 건물인데다 해안가에 인접, 바람도 세게 불면서 피해를 키웠다.

화재가 손님이 없는 이른 시각 발생한 탓에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M 식당 내 종업원 손모(여·56)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또 다른 H식당 2층에서 잠자던 최모(32)씨가 불길을 피해 뛰어내리다 부상을 당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화재로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소방서는 M식당에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난로)의 연기 배출구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화목 보일러는 폐간물에서 나오는 폐목재나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소규모 식당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이 늘고 있다. 반면, 소방 관리 대상에는 포

함되지 않는 탓에 적극적인 규제가 어렵고 안전 규정도 미흡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난방기구 화재 227건 중 화목 보일러가 원인인 경우도 66건(29.1%)에 달할 정도다.

◇자치단체 ‘미적미적 행정’ 한 몫= 화재가 난 상가 밀집 지역은 1977년부터 향만시설 보호지구(10만4000㎡)에 포함해 건축물 증·개축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이 일대에서 영업을 해왔던 상인들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화재 등 안전 사고 위험과 개발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들어 관계 당국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보호지구 해제가 많아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지 못하다 보니 상가를 찾은 손님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포시는 여태껏 정부의 ‘향만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상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4월 주민 요청을 반영해 해당 지역을 보호지구에서 제외키로 결정했음에도, 시설 개·보수 등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느긋한 행정이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목포시 관계자는 “정부의 ‘향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보호지구 재정비를 하는데 해안동 일대의 경우 지난 4월 보호지구 해지고시를 받았으나”면서 “올해 안에 해당 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또 경찰이 음주운전 ... 광산경찰 감찰

광주지방경찰청이 광산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돌입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부터 일주일 간 광산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관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경찰서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광산경찰서 작모(42) 경사가 20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된 게 직접적 계기가 됐다. 박 경사는 이날 0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소태요금소 부근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7%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광산경찰의 경우 최근 전임 서장이 경찰청 감찰에 따라 대기 발령된 데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는 등 각종 비위 행위가 잇따랐다.

지방청은 이 기간 광산 경찰의 사·교통 등 전 부서에 걸쳐 업무 추진 행태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김지형기자 dok2000@kwangju.co.kr



20일 오전 6시10분께 목포시 해안동 목포연안여객터미널 인근 상가 밀집지역에서 불이나 식당과 상가 등 13곳이 전소되고 소방서 추산 2억8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내 딸이 무슨 죄? ...엄마의 통곡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광주 A여고 정모(18)양 가정은 지난 7일 2014 대학수학능력 시험 이후 모든 게 틀어져 버렸다. 정양은 2주 이상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며 가족들은 맘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수는 시험 당일, 정양은 어머니 김모(44)씨가 차려 준 편장국과 불고기를 먹고 시험장으로 향했다.

김씨도 묵묵히 참아온 딸에 대한 대견함으로 정성껏 도시락을 싸 시험장까지 직접 바래다 줬다.

정양이 학교 후배들의 응원을 뒤로하고 시험장인 학교 정문으로 들어서던 김씨는 눈을 감고 딸을 위해 기도했다.

그 때였다. “어, 차 조심해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렸고 시험장 정문 주변은 삼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응원하던 학생과 교사가 차에 치여 나뭇굴었고 누군가 차 밑에 깔렸다면 아우성 소리가 들렸다. 김씨는 “살마”하며 교문

에 들어선 딸을 찾다 사고를 당한 딸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후 2주일이 지났지만 정양은 행태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김지형기자 dok2000@kwangju.co.kr

수능 시험날 사고 당한 여고생 아직도 병원 신세
12년 준비한 시험 망치고 수시 면접 제대로 못해



다. 딸은 왼쪽 다리와 허벅지, 엉덩이까지 화상을 입어 혼자 힘으로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형편이다. 진통제와 항생제를 맞고 수술도 미룬 채 갇힌 수능을 치렀지만 약기운이 퍼지면서 오후 시험은 문제조차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시험을 망쳤다.

정양은 “시험을 마친 친구들이 놀러다니며 멋부리는 모습이 가장 부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정양은 “최근 수시 1차 면접도 몸이 좋지 않아 잘 처리 못했다”고 했다.

2주간 딸의 곁을 지키며 일손을 놓았던 김씨는 지난 20일에야 출근길에 나갔다. 홀로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남겨놓고 나오며 울음을 삼킨 게 한 두번이 아니다.

교육청에 대한 섭섭함도 적지 않다. 재발방지 대책을 비롯한 후속 조치에는 무관심한 듯한 인상이 짙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사고의 책임이 수능교사에 있지도 않아 책임을 질 사람도 없다.

12년간 마음 고생하며 학업 스트레스를 참아오던 딸의 인생이 한 번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엉망이 됐는데 책임을 물을 사람도, 하소연할 사람도 없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내가 보상을 바라고 이러겠느냐. 내 딸이 잘못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 몸과 마음에 난

팔 아이의 상처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고 통곡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음란 구의원’

카톡 동영상 지인들에 보내

광주의 한 구의원이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 의회 소속 A 의원이 지인 50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는 인터넷 주소(URL)가 첨부돼 있었다. 이 주소를 클릭하면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됐다. A 의원의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에는 동료 의원, 공무원, 학생들이 포함됐다. 의회 측은 A 의원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는 한편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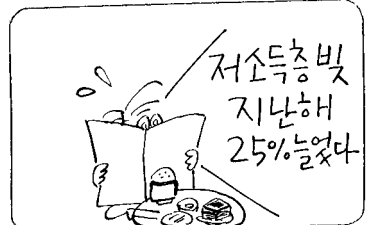
상처 경미하면 상해죄 아니다
광주지법 판결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려다가 반항하는 업주를 다치게 한 강도범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면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2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현철기자 chadol@kwangju.co.kr

4원칩 (9022) 김창두



임수경 의원 손배소 패소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1989년 방북 때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 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을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아파트 화장실 담배꽂이에 불 ‘아찔’

○아파트 화장실에서 불이 나 집을 태울 뻔한 아찔한 일이 발생.

○20일 광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5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J아파트 11층 백모(64)씨의 집 화장실에서 불이 나 내부가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1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뒤 5분 만에 진화.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아들(37)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통에 꽂조를 버리곤 한다”는 백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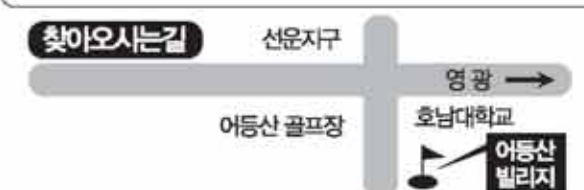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병·의원) 임대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 062) 651-6581
문의 | 010-3690-7790

인턴사원 모집공고

정보통신산업의 선두주자 “큰A 방송” 대진정보통신에서 인턴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부	인원	전공 및 우대사항	근무지역
IT부문	20명	- 컴퓨터관련, 정보처리관련 전공 우대 - 전산계산, 전자통신, 정보통신 관련학과 전공 우대 - 전파, 통신, 전자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울지역 전남광주 (희망지역 기재)
공통사항		2014년도 졸업예정인자 - 인턴기간 3개월(근무성적 우수자 정규직 전환) - 월급여 110만원(중식제공) 4대보험 가입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

▶제출서류

가. 이력서 사진부착(일반양식).....1부

나. 자기소개서 A4 2매 이내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1부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11. 22(금) 접수분까지.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jeon@dsic.co.kr)

다. 문의처 : T. 02-2107-5011(홈페이지 : www.dsic.co.kr)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대진정보통신주식회사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대출한도 최대 :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